

【아메리카·포틀랜드 방문】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오카야마 상공회의소와 오카야마 대학의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포틀랜드시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조사가 주요 목적으로 포틀랜드 시장과 시의 도시 개발국 직원, 주립 대학의 관계자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거리를 충분히 산책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인상에 남은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

오카야마의 노면전차는 중심가의 거리만을 달리고 있지만, 포틀랜드에서는 작은 골목에도 노면 전차가 달리는 등 대중교통이 편리해 고령자도 생활하기 편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현대 미술 등의 전시가 많아 이벤트도 가득합니다.

팔고 있는 지방 맥주의 종류도 훌륭해 산책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2. 환경 보전

포틀랜드에서는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배출 가스의 감축을 도모하여, 환경 부하가 적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전체에 빗물을 모아 화장실 등으로 재이용하는 등 도시 전체가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호텔의 방 휴지통도 분리하고, 기념품을 사더라도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로 포장해주는 등 섬세한 부분까지 환경 보전 의식이 철저했던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3. 시민 참여

현지에서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시민 참여가 큰 키워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설명해준 분들은 모두 시민 참여로 그것을 이루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본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재 중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요시다 소스의 회장 요시다 준키 씨의 초대를 받아, 소스 공장을 견학하고, 그분의 반 생애에 관한 말씀을 들은 뒤 2만 5천 평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시다 씨는 「요시다 소스」를 미국에서 히트 시키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신 분으로, 이런 전대 미문의 일이 일본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바가 있는 유명한 분이지만 한편으로 형식적이기 쉬운 접대 중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자연의 속에있는 저택에서 부인 린다 씨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린다씨의 개척정신에 감복함과 함께 제 아내에겐 이 생활은 무리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요시다씨께 오카야마에 오셔서 강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현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도 꼭 그 강렬한 열정을 느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방문에서 강하게 인상에 남은 오카야마 상공회의소
오카자키 회장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뉴욕에서 살고자 생각하지는 않지만 포틀랜드에서는 살고 싶다」

우리도 오카야마를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대책을 세우고 더 많은 분들이 「동경에서 살고자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카야마에서는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